

김종인 “총선 실패하면 물러나겠다”

목표 의석수 107석 제시… “캠페이너 역할은 더이상 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6일 4·13총선 목표 의석수로 107석을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의석수 정도만 확보하면 선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107석을 승배 기준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변함이 없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물론 희망을 생각하면 과반수도 넘지 않겠지만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 놓여있어서, 처음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107명에 미달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는 패널의 질문에는 “선거를 이

끌었던 사람이 책임지는 선례를 따를 수 밖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을 떠날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상황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으면 당 떠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목표 의석 초과 달성시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생각은 현재로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내부 사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선 후 남아서 당 대표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 미리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야권연대, 매우 어려워... “정의당 정

체성 달라 불가”

김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야권연대 성사 가능성에 대해 “당대당의 야권연대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바라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다가오면 각 지역구별로 우열이 드러나니 후보자 간 연대는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제외한 채 천정배 대표와 최재천·김한길 의원과 합당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전된 보도라 생각한다”며 “당 대표를 제외하고 통합을 하지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당의 정체성이 달라 쉽게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별로 유불리를 고려해 안당이 의논을 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정체성 다른 정당과의 연대는 쉽게 이뤄지지도 않고 일반국민들도 납득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정책연대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다”고 강조했다.

◇“김 메이커는 더이상 안 해”

김 대표는 “캠페이너 역할은 지난 대선 이후 안 하겠다고 결심했다”며 “더이상 김 메이커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여기에 어떠한 목표를 갖고 온 사람이 아니다”라며 “당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다음에 원래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대선 후보의 생각을 갖고 있는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성주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결론 못내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16일 3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에 대해 “결론내리지 못했다”며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황 총장은 “경선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했다”며 “단수추진, 우선추진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 조율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승민 이재오 의원에 대한 얘기도 다 나왔지만 결론을 못 냈다”고 말했다.

다 하지만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후 회의의 속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날 오후 회의가 속개될 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위에 재의를 요구기로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해 자신의 역할함을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주 의원 재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부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얘기 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침묵을 지켰다.

이한구 “재심 요구해도 소용없다”

당 최고위에서 재의 요구한 주호영의원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16일 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한 주호영(대구 수성) 의원에 대해 “재심 요구해봤자 소용없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도 재심요구 2건이 있었지만 모두 다 반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 결정에 대해 “공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해놓고 사정변경이 없는데 어

떻게 바꾸냐”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전남 유승민계 대다수를 컷오프 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자꾸 보도를 하는데, 탈락된 사람을 중심으로 누구하고 무슨 관계니까 무슨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모든 사람들은 다 친소관계가 있다. 이번에 탈락된 사람 중에 나랑 친구들도 여러 명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친구 정리했다는 얘기가

밖에 안 되잖냐”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 두가지 기준을 갖고 친소관계를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자꾸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20대 국회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이라고 공천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접수를 매겨보니 80점밖에 안 되는데 단수공천을 한다? 그럼 왜 그랬을까, 거긴 50점짜리 후보들 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다. 그걸 체크해보라. 그러고도 이상하면 그때까지 얘기하라”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김영일 예비후보, 혁신경제 3C정책 비전 제시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4.13 총선 후보자와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비전제시와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대한전설협회 전라북도회 6층 두미나스홀에서 밝혔다.

김영일 익산 갑 지역 국회의원에 예비후보(이하 김 후보)는 익산시에 비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해서 공천에 영예를 얻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 후보는 “일 잘하는 일꾼이다”며 자신을 소개 한 뒤 “역동적 혁신경제로 익산시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역동적 혁신경제·3C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3C정책은 먼저 창조(Creativity) 새로운 대가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익산시의 역동적 창조경제. 그리고 융화(Convergence)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스마트화하는 익산시의 선제적 미래대기, 마지막 도전(Challenge)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



/익산=정양원 기자

박종길 예비후보, 공천 확정 본격선거운동 돌입

오는 4.13 총선에 전북지역의 대진표가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번 주 중부터 본격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종길 새누리당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박 후보)는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장관 전주을 예비후보와 함께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지역 당선가능성 지역으로 분류되어 장·차관 출신으로 분류되어 역대최고의 매지들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꾸준한 공약개발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박종길 후보는 “이제 저는 군림하는 정치가 아닌 봉사하는 정치가” “익산에 실현되도록 변화와 발전 바람을 구석구석에 작은 변화를 큰 발전의 물결기를 모아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전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힘찬 발걸음으로 돌입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김관영 예비후보, 6대 문화·관광 공약 제시

국민의당 김관영 예비후보는 16일 군산 시청 기자회견에서 군산과 새만금을 국제관광도시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6대 문화·관광 공약과 5대 새만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김 예비후보의 6대 문화·관광 공약은 ▲군산의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군정대교 완공에 맞춘 해양동 수산시장 현대화와 문화관광형 어시장 육성 ▲도시재생과 연계한 근대문화관광벨트 완성 ▲도시순환(시터포프) 버스 도입을 통한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한 5대 새만금 공약은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 ▲동북아 최고의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에터파크 및 규제프리존 조성, 한중 FTA 산단 및 경험단지 조성) 등이다.

김 예비후보는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를 여는 관문”이라며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통해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경제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강동원 예비후보, “무소속 바람 일으키겠다”

무소속 강동원 국회의원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원칙없는 밀실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패배를 스스로 자초했다. 민심이 요동치는 전라북도에서 무소속 바람을 일으키겠다 4년전에 일으켰던 강동원 돌풍을 재현해 내서 당당이 승리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이뤄낸 지역발전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진없는 지역발전과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후보는 남원향교, 운봉향교 춘기석전대제(釋奠大祭)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정통과 예법이 사라지고, 아동학대와 각종 흉악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전문분야를 확립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충효정신을 다져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곽인희 예비후보, 김중희 경선 무효청구서 제출

국민의당 곽인희(김제부안) 예비후보는 김중희 예비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 경선은 그 자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중희 예비후보의 경선자적 무효청구서를 1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인희 후보는 “김중희 예비후보의 경선자적을 부여한 컷오프사 부활여론조사는 원천무효”라며 “김제·부안지역 공천의 무효소송 내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김중희 예비후보를 컷오프한 원래의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후보는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공천자를 확정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특정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은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공정성에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켰다”며 “혜정대로 경선이 진행되더라도 불공정 경선의 오명을 넘어 법적 공방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주기자

김정호 예비후보, “소외계층 살맛나는 세상일”

국민의당 김정호 예비후보(완주무진장·사진)는 16일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김 예비후보의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5대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다.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는 그동안 김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정책에 담은 것이다.

당초 김 예비후보는 소외계층이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지원 확대 ▲노인 복지 증진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촌의 다른 화가족은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제고 결혼 이민자 영농교육 개선 및 사회적 기업 창업 활동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4.13 선거 RUN·RUN·RUN

이관승 예비후보, 전주예술회관 건립 공약 발표

국민의당 이관승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갑)는 전주예술회관 건립을 네 번째 역점 공약으로 발표했다.

1천만 방문객 시대를 맞은 전주가 진정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을 비롯한 볼거리와 함께 산재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협력하여 공연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국내 공연산업의 규모가 2006년 1,900억, 2013년 3,880억 수준으로 1999년 이후 매년 10% 후반대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기작품들의 공연장은 모두 수도권(서울 19개, 경기 1개)에 편중되어 있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이 필수적이다. 또 전북의 문화예술가들이 이에 적극 효율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단기간에 조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선 문화분야 만이라도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전주예술회관의 건립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장세환 예비후보, “전주 행복지수 100% 명품도시로”

국민의당 장세환 예비후보(전주시을·사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세환의 전주 사랑공약’을 발표했다.

장 예비후보는 “전주는 백제·조선의 품은 역사문화 관광도시이자 모악산·삼천천·전주천을 품은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우리 아들, 딸들이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행복지수 100% 명품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주·완주를 통합하는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게 중요하며,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들의 지역 인제 채용비율을 상향 의무화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행정통합을 통해 입주기관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륜장 주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 종합복지문화회관, 전북 장애인인권센터, 서부지역보건소 및 서부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정운천 예비후보, “효천·삼천잇는 교량건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는 16일 LH한국토지공사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효천·삼천지구를 잇는 교량건설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효천지구 주택공급사업은 서부신시가지와 효지45지구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 인프라 및 쾌적성 등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정 후보는 “이 지역은 상습 교통 정체 지역으로 효천지구와 삼천지구를 잇는 교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삼천천변과 어울릴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 교통량 분산을 물론 주변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 후보는 민생119본부 활동을 통해 수렴한 효지동 휴먼시아 단지내 민원사항을 LH 전북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신광영기자

엄윤상 예비후보, 공명·정책·클린선거 동참 촉구

국민의당 엄윤상 예비후보(전주시을·사진)는 16일 “모든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공명선거·정책선거·클린선거에 나서달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전과 정책 대결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정당별 공천이 임박하자,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며 “상대를 비방하기에 급급한 선거운동방식은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 예비후보는 “이번 4.13총선은 제대로 된 선거, 정책으로 경쟁하고 실력으로 평가 받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페이퍼플레이 정선에 입각해 선거법을 준수할 것과 정책, 비전을 알리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고 밝혔다.

엄 예비후보는 끝으로 “이번 주 진행되는 국민의당 여론조사에 엄윤상을 선택해, 시민이 원하는 혁신에 밀일이 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수기자